

懷月文學史에 대하여

金 允 植*

I

懷月 朴英熙(1901~?)는 詩잡지 「장미촌」(1921)의 同人으로 출발, 「新青年」(1921. 5) 및 「白潮」지의 동인이었으며, PASKYULA 및 KAPF의 창립 멤버였고, 新幹會 간부를 역임하였고, KAPF 全州사건에 관련 약 일년간 복역하였으며 『읽은 것은…… 읽은 것은……』라는 구호를 남기고 전향한 바 있다. 이어 사상범 보호시찰법에 의거, 전향자 대회(1938. 7)에 참가하였고, 「朝鮮文人協會」(1939. 10) 간부가 되고, 1939년 北支從軍에 다녀왔고, 芳村 喬道라는 創氏改名으로 新體制文學에 협력하였고, 1950년 납북된 바 있다. 또한 그는 詩, 小說, 수필, 평론 등에 모두 관계하였으며, 특히 이론가로서의 그의 평론이 文壇의 方向感覺에 민감하였으며 또한 상당한 기간동안 지도자적 위치에 있었다는 점은 부정되기 어렵다. 李光洙와 金東仁을 제하면 한국근대문학 거의 전기간을 그가 문단과 함께 살아온 것으로 보아도 지나친 과장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사람이 문단사나 文學史를 썼다는 것은 매우 그럴 법한 일이다.

한국근대문학을 전공하는 사람중에는 朴英熙의 「獨房」(「현대문학」 45호~50호), 「初創期的 文壇側面史」(同 56호, 58호~65호) 그리고 「現代韓國文學史」(「思想界」 1958. 4~59. 4) 등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일찌기 필자도 朴英熙에 관심을 가진 바 있거니와¹⁾ 그때 가졌던 의문점은 늘 가지지 않았다. 그 중의 하나는 「獨房」과 「現代韓國文學史」가 모두 완결되

* 人文大 副教授(國文學專攻)

1) 참고, “懷月朴英熙研究”(學術院論文集 제 7집 1968) 참조. 拙著 「近代韓國文學研究」(一志社 1973)속에 再收錄. 참고, “轉向의 生理와 論理”(韓國近代文學思想批判) 一志社 1978. 所收)

지 못하고 중단된 점이었다. 「獨房」은 思想轉向의 본질을 밝히는데 극히 중요한 內側의 기록이다. 이것없이 轉向論은 기술되기 어렵다. 이것이 「現代文學」誌에서 연재되다가 중단된 이유는 「初創期的 文壇側面史」 연재 때문인 듯하다. 「紹介의 말」에 기대면 「獨房」은 단행본으로 간행될 예정이어서 중단된 부분은 그때 잃어라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후 단행본으로 나온 바 없다. 한편 「現代韓國文學史」는 10회로 연재된 것인데, 이는 「第二篇 第四章」까지이며 「캅우運動의 反省期」에 해당되고 있다. 그 제10회 끝에는 <계속>이란 표시가 있으나, 그 다음달 편집후기에 의하면 단행본으로 나오게 되어 중단한다고 적혀있다. 「獨房」과 「現代韓國文學史」는 함께 매우 중요한 文獻이기에 이의 중단된 部分에 대한 궁금증은 그 후 단행본으로 나온 바도 없기에 한결 큰 것이었고, 또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²⁾

그런데, 1977년 12월 24일 필자의 연구실로 낯선 사람의 전화가 걸려왔다. 朴英熙의 婿郎 노의형氏였다. 어느 다방에서 그를 대면했을 때, 1978년 1월 6일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면서 커다란 가방을 나에게 내밀었다. 朴英熙의 유고였다. 필자가 朴英熙의 장남 박기원氏를 만난 것은 1966년이였다. 그때 그는 미국 이민을 가니 장서를 팔 작정이라 하고 이를 소개해줄 수 없겠는가 라고 했었다. 이로 보면 朴英熙의 가족이나 가까운 친지는 모두 이민간 셈이다. 필자는 노의형氏로부터 그 자료를 출국하기 하루 전까지 검토해 볼 기회를 가졌다. 그 자료들은 대부분 이미 발표된 것이었으나, 「現代朝鮮文學史」의 初벌 原稿와 淸書원고(「思想界」에 발표된)를 찾아낼 수 있었다. 「獨房」의 원고는 그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 글은 「思想界」에 연재된 「現代韓國文學史」중 미발표부분을 약간의 비판적 안목으로 소개함에 목적이 있을 따름이다. 겸하여 한가지 더 보태고 싶은 것도 있다. 1958년 이 원고가 「思想界」誌에 실릴 적에 그 머리에 白鐵의 「懷月の 文學史가 發表되는데 앞서서」라는 글이 실려있고 그 속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포함되어 있다.

『실상 懷月兄의 귀중한 그 원고……지금 중간에서 애를 쓰고 있는 奎光鎬兄과도 수차 상의한 바 있지만……近來 우리 出版界란 것이 많이 안 되어 도무지 그 기회

2) 白鐵의 소개에 의하면 懷月文學史의 <一次 그 結論정도가 巴人의 主宰인 「三千里」誌上에 몇 회 동안 연재된 일이 있으며, 그 뒤 바로 6·25직전에……(「思想界」1959. 4. p. 290)로 되어 있다. (필자는 이점 아직 미확인)

를 얻지 못하고 있는 채로 나는 미국으로 떠나왔던 것인데 내가 떠난 뒤에 남아 있는 全光鏞兄이 노력을 해서 우선 「思想界」誌에 一次연재를 하다가……」

이 문맥 속에는 한국근대문학을 필생의 사업으로 삼고 살아온 한 文人의 체험적인 文學史 정리사업과, 그것을 기리고 소중히 다루고자 했던, 이제는 回甲을 맞는 한 젊은 학도(全光鏞)의 열정이 생생하게 담겨져 있다.

II

懷月の 이 문학사의 원제목은 「現代朝鮮文學史」로 되어있거니와 본론에 이르기 전에 앞서 원고지 13매분량의 머리말이 붙어있다. 단기 4283年 3월에 쓴 것이니까 1950년 6.25 나기 석달전에 해당된다. 「獨房」 「初創期の 文壇 側面史」가 이보다 전에 씌어졌을 것으로 추측되거니와 「現代朝鮮文學史」는 懷月の 최후의 저작에 해당되는 것이다. 1950년 3월이라고 적혀있지만, 이는 이 文學史의 탈고 연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思想界」지에 소개할 적에 白鐵은 『이 문학사 원고가 된 것은 나의 변변치 못한 「新文學思潮史」(上)가 나온 직후, 그러니까 나의 同著 下卷이 나오기 전 대개 1948年 중간에서 그 全篇이 끝났던 것으로 알고 있다.』³⁾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 이는 文學史 원고 머리말 중, 『脫稿後……出版社의 事情으로 二年이나 그냥 지나갔다』⁴⁾라는 사실에 기초된 판단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 1950년 3월에 쓴 머리말은 출판사가 결정되어 조판단계에 들어설 때 쓴 것으로 된다.⁵⁾

懷月文學史(이하 이렇게 부름)는 이로 보면 1948년 무렵 탈고된 것이다. 주지하는 바 韓國近代文學史를 비교적 자세히 다룬 것은 林和의 文學史가 머리에 온다.⁶⁾ 白鐵의 文學史는 두번째이거나 아니면 懷月の 文學史와 同時

3) 「思想界」1959. 4. p. 290.

4) 懷月の 「現代朝鮮文學史」原稿 p. 10. (이하 원고라고만 함)

5) 白鐵의 소개에 기대면 이 원고는 金振求씨의 出版社에 맞겨진 것이라 한다.

6) 林和의 學史는 「朝鮮新文學史論序說」(「中央日報」1935. 10) 「概說朝鮮文學史」(「朝鮮日報」1939. 10) 「人文評論」(2권 10이하) 등인바, 開化期에만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엄밀히 따지면 體驗의 文學史의 범주에 들기 어렵다. 그의 文學史가 강렬한 方法論(移植文學史的 안목)을 전제로 한 것도 자기의 위치와 開化期 사이의 거리가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開化期 研究는 그 方向性的 확립이 현재 自己의 文壇的 위치에 연결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체험적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의으로 씌어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세번째가 趙演鉉의 文學史이다. 이 첫번째에서 세번째까지의 文學史가 각각 그 나름의 方法論에 의거한 것임은 세삼 말할 것도 없지만 또한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 하나는 모두가 한국근대문학에 직접 관련된 文壇人이었다는 점이다. 이들의 文學史가 강렬한 方法論의 인식보다는 체험기적 성격으로 기울기 쉬운 유혹을 안고 있음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다른 하나의 이유도 이와 밀접히 관련된다. 즉 이들이 文學史를 집필케 된 동기가 서로 공통되고 있다. 林和의 경우 世代論의 일환이었고⁷⁾, 白鐵의 경우는 乙酉年 解放이었고, 懷月の 경우도 같다. 모두가 轉形期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던 셈이다. 林和에 있어서는 프로문학 활동을 객관적 정세악화로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것의 代償行爲로 文學史에 집착했던 것이며, 따라서 비교적 方法論의 강한 인식이 동반될 수 있었다. 이 점에서만 보면 白鐵이나 懷月の 경우는 方法論의 인식이 덜 날카롭지만 다른 文筆行爲 不能에 대한 代償行爲로 文學史가 선택된 점에서는 같다. 懷月の 술회를 보면 다음과 같다.

나의 30년동안의 文壇生活은 現代朝鮮歷史의 運命과 더불어 實로 崎嶇하였다. 日政時代의 末期에는 나는 紙筆을 내어던진 채 7·8년의 歲月을 헛되이 보내고 말았다. 나는 이렇게 無聊히 지나가는 동안 自慰의 길을 文學史를 草하려는데서 發見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틈틈이 資料를 整理도 하여 보았으나 이것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荊路에 내 自身이 있게 됨을 알게 될 때, 나는 하는 수 없이 이것조차 中止하고 말았다가 8·15를 當하게 되자 自由와 餘暇를 살리기 위하여 또 다시 펜을 잡었다.⁸⁾

懷月이 <다만 얻은 것은 이데올로기며 상실한 것은 예술자신>이라 선언, 프로문학에서 전향한 것이 1934년 1월이었다. 상식적으로 보아, 이후에 전개될 그의 활동은 많은 예술 자체를 다시 찾는 행위로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비평가인 그로서는 「白潮」시절에로 되돌아갈 수가 없었다. 다만 「白潮」의 唯美主義的 文學觀을 논리적으로 체계화하는 일이 그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 全州사건 이후, 집행유예로 나온 그는 北支從軍에 임하고, 新體制에 동조하는 일방, 예술론을 정리하였고 그것이 체계화되어 나온 것이 「文

7) 拙著, 「韓國近代文藝批評史研究」(一志社) p. 500이하 참조.

8) 원고 p. 5.

學과 理論의 實際』⁹⁾이다. 이 저서가 비록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이른바 맑스주의 예술론을 비판한 체계적 순수예술론으로는 처음 있는 일로서 매우 중요한 저술이라 할 만하다. 어떤 관점에 설 때는 親日行爲라든가 기타 세속적 활동은 이 저술에 비하면 표면적 사실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日政時代 末期 7·8年>을 헛되이 보내었다고 슬회하고 있음은 무슨 뜻일까. 여러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겠지만 그 중의 하나로 우리는 그가 전향 후 계속 노력해온 체계적 藝術論의 모색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음직하다. 이 저술에 동원된 많은 이론서 가령 플레하노프, 프리체, 러스크, 괴테, 스코트 등을 이해한다는 일, 이런 기초 위에서 또 이를 비판한 바탕에서 자기 나름의 독자적 체계를 세우는 일은 그로서는 한계를 넘는 벅찬 일이었으리라. 자기 분수에 맞는 일이란 무엇인가, 라고 자문했을 적에 떠오른 것이 文學史 記述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향수의 일종일 수도 있다. 朝鮮文學에 대한 가능성이 아주 없을 때, 지난 날의 화려했던 자기 활동은 흘러간 젊음 그것의 원광을 쓰고 저만치 놓여있었을 것이다. 회고록을 쓰고싶은 충동은 이로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추측컨대 「初創期の 文壇側面史」가 이에 해당될 것이다. 그러나 해방이 되었을 때 사정은 달라진다. 朝鮮文學에 대한 가능성이 거의 절대적으로 주어졌으며, 따라서 文學史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로서 연속성의 의미를 띠게 되었다. 이제는 文壇 側面史라는 私的 단계가 아니라 朝鮮文學史라는 公的 단위로 확정된 것이다. 그가 <7·8年을 무료히 보냈다>고 한 것은 이 文學史記述의 意義에 비할 때에 그렇게 느껴진다는 뜻으로 보아야 할 듯하다. 그리고 이 모두는 體驗的 文學史를 쓰는 경우 누구에게나 부딪치는 自意識의 일종인지도 모른다. 이 사실은 체험적 文學史型的 方法論 자체인지도 모른다.

懷月은 그의 文學史 方法論의 大前提속에 다음 두가지를 먼저 문제삼았다. 첫째는 『資料가 없어서 곤란하였던 것이 아니라 자료가 너무 많아서 그 取舍選擇에 곤란했다』¹⁰⁾는 점. 文學史가 평면적 갑동산이의 만화경일 수 없기

9) 참고, “懷月 朴英熙研究”(앞글)중 IX. “懷月批評의 決算—文學의 理論과 實際” 참조.

10) 원고. p. 12.

에 이 문제가 소박하게나마 의식된 것으로 보아진다. 둘째는 『그러나 이 著書의 性格上 文壇史를 無視할 수 없으므로 비록 一時的으로 나타났던 作家라 하더라도 그 個人的 力量과 傾向이 뚜렷한 作家는 다 各各 一定한 時代에 編入되었다』¹¹⁾라는 점. 이는 첫째번 문제점과 모순되는 점이기도 하다. 자료가 너무 많아서 곤란하다는 것은 주류라든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뜻, 즉 透視主義¹²⁾를 견지할 수 없는 고충을 드러낸 것이라면 두번째 문제점은 이와 모순된다. 文學史이기보다 性格上 <文壇史>임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 모순점이 곧 懷月文學史의 모습이며, 體驗의 文學史의 性格이기도 하다. 이 점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핀다면 懷月 이 제시해 놓은 <凡例>를 전부 보이는 일이 지름길일 것이다. 번거롭지만 자료의 첫 공개라는 점에서 이하 기록하는 터이다.

凡例

一. 本書는 作家 個人研究에 重點을 두지 아니하고 文學史全體를 通하여 그 傾向과 時代의 言流만을 重要하게 取扱하였다.

一. 本書에 引用된 作品은 그 時代의 主流에 代表될 수 있는 것만을 擇하였고 그 外的 것을 略하였다. 그러므로 作家들의 處女 作에 關하여서도 一律적으로 그 作品名이나 發表年月日을 表示하지 않고 問題되는 作品에 限하여서만 明證하였다.

一. 年代가 現在로 가까워 올수록 作家들 中에는 文壇에 나온 年代를 明記할 수 있는 標準을 定하기에 어려운 人들이 있음으로 文壇에 나왔다는 事實보다도 作品의 內容에 따라 適當한 年代에 編入하였다.

一. 詩文學에 있어서는 그 詩人의 數를 制限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作品의 傾向에 있어서는 實로 雜多함으로 詩文學은 後日 따로 研究紹介할 意慾에서 그 全部 그 主流만을 論及하였다.

一. 文學評論도 할 수 있는대로 넓은 範圍로 取扱하였으나 作品과 直接關係 있는 論文에 限하였고 그 外的 個人的 趣味에 따르는 論文等은 問題外로 하였다.

一. 問題되는 評論中에서도 同一한 論題의 論文이 數種以上으로 있을 때에는 그 中에 傾向이 明確한 것만을 代表로 論及하였고 그 同類의 것을 省略하였다.

一. 死亡한 作家에 關하여는 別表附錄으로 그 一覽表를 부쳤다.

11) 원고, p. 12.

12) R. Wellek의 용어 perspectivism. (拙著, 「文學批評用語事典」一志社 p. 278 이하 참조)

III

懷月文學史의 골격은 다음 目次에서 대강 엿볼 수가 있다.

序論 現代朝鮮文學의 性格

第一章 現代朝鮮文學의 規定

- 一. 現代朝鮮의 特殊性
- 二. 朝鮮文學定義에 對한 諸意見
- 三. 朝鮮魂을 담은 民族文學

第二章 現代朝鮮文學의 發展形態

- 一. 後進民族文化의 缺陷
- 二. 政治運動에 同化過程
- 三. 準備期의 基礎役事

第三章 現代朝鮮文學과 그 思想性

- 一. 새로운 傳統의 創造
- 二. 外國文學과의 交流關係
- 三. 思想性의 分析

第四章 「新小說」과 現代朝鮮文學

- 一. 「新小說」의 一般的 性格
- 二. 「新小說」의 時代精神

第一篇 青春朝鮮의 情熱과 理想

- 第一章 新文學建設의 出發
- 第二章 同人制文藝雜誌時代의 諸傾向
- 第三章 世紀末의 思想과 自由運動
- 第四章 現實主義의 擡頭과 그 方向

第二篇 朝鮮의 現實의 成長과 文藝運動

- 第一章 新傾向文學의 意義와 그 作品
- 第二章 民族主義의 陣營과 그 追隨者
- 第三章 方向轉換期의 文藝運動
- 第四章 카푸運動의 反省期

第三篇 學難期의 朝鮮文學

- 第一章 沈滯된 文學運動의 進路
- 第二章 轉換期文學의 諸傾向
- 第三章 人間探求時代의 諸作品

第四章 詩的 精神의 復興과 定型詩運動

第五章 歷史小說時代

序論을 제하면 三篇으로 되어 있는 바, 이 중 第三篇은 지금까지 완전한 형태로 발표된 바 없다. 懷月文學史의 총분량이 200字 원고지 820枚인데 이 第三篇이 521枚로부터 시작됨을 보아 분량상으로도 압도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내용 역시 관점에 따라서는 풍부하고 중요한 요소를 담고 있다. 특히 이 文學史의 총 結論에 준하는 마지막 章을 「歷史小說時代」로 설정한 점이 이를 말해주는 것이다. 이 第三篇의 요점을 간략히 소개하고 약간의 의견을 첨부해 두기로 한다.

第三篇은 1930년 이후에서 10年間(「文章」誌 3년간까지)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그 第一章은 제목이 표시하듯 有意文學(意識文學이라 懷月은 명명하고, 순수문학을 無意識文學이라 부르고 있다)의 퇴조로 인해 침체해진 문단을 진단하고 있다. 이 침체 속에서 새로운 빛으로 등장한 것이 (1) 古典探求熱이다. 古典熱은 日本思想界의 動向이었지만 이를 懷月은 『革命的인 勢力을 근절시키려는 日本의 爲政者들이 이러한 古典研究에 對하여는 比較的 緩和政策을 썼었다』¹³⁾라고 적고 있다. 그 결과 학계의 國學研究, 古典文學 연구 등의 풍조를 낳는다. (2) 단편 중심에서 장편으로 기울었다는 점. 그 원인으로는 작가들의 力量의 원숙성이 그 하나이고, 통속성을 요구하는 시대성이 그 둘이다. 저널리즘의 팽창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第二章 역시 10년간의 중요한 경향을 요약 제시하고 있다. 프로문학운동이 객관적 정세악화로 불가능해지자 허가된 한도 內에서의 프로文學 혹은 사회운동으로서의 그것은 (1) 농촌계몽운동만이 가능했다. 春園의 「흙」, 李石燕의 「黃昏의 노래」(중편), 沈大燮(燾)의 「常綠樹」 등과, 프로문학系의 民村의 「故郷」등이 이 범주에 든다. (2) 프로문학系는 崔載瑞 지적대로 「後日 譚文學」¹⁴⁾으로 변모되었다는 점. 그 과도기적인 것으로는 八峯의 「海潮音」, 韓仁澤의 「旋風時代」, 李無影의 「地軸을 돌리는 사람들」(중편), 咸大勳의 「景風前夜」, 姜敬愛的 「人間問題」, 柳致眞의 희곡 「土幕」 등 장편이 거론된다.

13) 원고 p. 549.

14) 이 용어는 崔載瑞, 「現代小說과 主題」(「文章」제1권 6호)에 의거.

(3) 한편, 궁핍과 시대적 폐쇄에서 오는 고민을 그린 단편이 보태어진다. 崔明翊, 石仁海 등이 이에 든다. (4) 순수문학을 들고 있다. 순수문학이란 『맑스主義意識의 宣傳的 任務에서 벗어난 文學』¹⁵⁾의 총칭이라 규정한 그는 다시 (a) 맑스주의만이 아니라 어떤 이념에 예속되지 않은 것. (b) 文學의 形象化의 作品 즉 〈彫刻小說〉¹⁶⁾을 지칭한다. 性格創造小說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먼저 李泰俊이 거론된다. 朴泰遠도 물론 이 범주에 든다. 『川邊風景』과 같은 作品은 純粹文學中에서도 極히 能動的으로 意識文學에 對峙하여 別다른 自己世界를 만들려고 하였다. 말하자면 現實生活에 얽매일 必要없이 自己의 創作世界에서 새로운 現實을 創造하려고 하였다.』¹⁷⁾ 懷月이 말하는 〈意識文學〉이란 앞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프로문학을 말한 것이다. 그 가장 극단에 서는, 脫이데올로기적인 것이 「川邊風景」으로 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川邊風景」에서의 그 〈새로운 現實〉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生體驗의 分解에서 생기는 무수한 生活面의 寫實性이다. 그 다음으로는 安懷南으로 대표되는 身邊小說을 든다. 한편 순수문학의 새로운 유형으로 金東里의 「巫女圖」「黃土記」를 지적하고 있다. 金東里에 있어서의 民俗的 信仰은 주관적이고 第一義이며, 따라서 어떤 生活에 결부된 것이 아니라 그 信仰과 運命이 곧 生活의 근본이며 원천이라 보아, 獨異한 세계라 보았다. 金裕貞의 純粹性은 〈情熱만이 表現된 作品〉이라 한다. 〈순진결백〉이라든가 〈정열〉 그리고 〈極히 靜的인 정열〉라고도 표현되고 있다. 끝으로, 李箱이 거론되고 있다.

第三章. 人間探求라 할 때 물론 이는 西歐 및 日本의 지식인의 不安思想에 影響된 것이지만 한국의 경우 그것은 먼저 프로문학의 좌절에서 오는 轉向問題와 관련되고 있다. 懷月은 이를 〈轉向小說〉이라 하여, 새로운 人間型이라 규정하고 이 범주속에 李箕永의 단편 「燧石」「설」, 韓雪野의 「泥濘」, 俞鎭午의 「金講師와 教授」, 宋影의 「音樂敎員」 등이 든다. 이러한 後日譯文學의 한 變型이 李孝石의 「장미병들다」인 것이다. 사상운동의 과거를 가진 人物이 타락해 간 것을 그린 것이기에 위의 진지한 轉向小說과는 다소 다르다.

15) 원고 p. 630.

16) 이 용어는 丁東來, “彫刻文學과 羅列文學”(『中央』1934. 8)에 의거.

17) 원고 p. 639.

새로운 人間探求의 다른 유형으로는 李光洙의 「無明」, 崔貞熙의 「地脈」, 金南天의 「大河」 등을 들 수 있으나 뚜렷한 個性創造라고 보지 않는다. 「大河」를 懷月이 세갈래의 痴情관계로 분석하여, 道德性和 결부시키려 한 점은 지적될 만한 관심이다.

이와 아울러 大衆小說의 人間型이 거론된다. 金來成 金末峰 등이 이에 든다. 끝으로 新人들. 「斷層」同人과 金廷漢 崔泰應 郭夏信 林玉仁 池河連 任西河 黃順元 金永錫 등의 이름을 적고 있다.

第四章은 30년대 詩論. 이 章은 매우 자세한데, 큰 데두리로 懷月은 1920년대에 나온 既成, 1930년 前後에 속하는 카프系 詩人, 1930년 이후의 新人으로 三分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는 詩人中心이었지만 그가 중점적으로 논한 것은 다음 4가지 항목이다. (1) 鄭芝溶의 彫刻的인 언어 및 그 感覺性和 金起林의 모더니즘의 感覺性, 新進詩人의 대부분이 이 둘 중의 어느 하나이거나 둘의 혼합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 「詩文學」과의 抒情性. 이를 그는 言語와 形象의 관계로 보아 <섬세한 정서의 표현>이라 한다. (3) 카프詩人들의 변모. 朴世家の 「山제비」, 權煥의 「倫理」, 李燦의 「待望」 등에서 보듯 리듬과 서정성의 획득이 지적된다. 이를 <時代性에 合流되었다>고 적고 있다. (4) 끝으로 그가 큰 관심을 보인 것은 時調에 관해서이다. 그러나 時調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이기보다는 安自山, 가람, 曹雲 등의 학설을 소개 것에 그치고 있다. 이는 다음 章과 연결하기 위한 방편인 듯한 인상을 준다.

第五章. 어째서 懷月文學史는 「歷史小說時代」로 끝장을 삼았을까. 이 물음은 실상 懷月이 文學史를 쓰게 된 현실적인 動機를 묻는 것과 같다. 「머리말」에서 보듯 해방 후 사회가 <朝鮮을 알려는 慾求>에 불타고 있다는 점과 이 문제가 내밀하게 관련되고 있는 것이다. 第五章이 이 文學史의 총 결론인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다음 기술에서도 선명히 볼 수 있다.

1930年以後 朝鮮文壇에 새로운 現象은 歷史小說의 權頭이었다. 이미 위에서 考察한 바와 같이 1930年以後의 朝鮮文學에는 民族主義文學이나 靑島主義文學에 對한 彈壓이 점점 甚해져서 所謂 意識文學은 쇠퇴하는 길로 기우러졌고 이에 뒤를 이어 純粹文學이 일어났으나 이것 역시 얼마되지 아니하여 戀愛 獵奇 諷刺 等の 趣味中

心의 大衆小說로 기우러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歷史小說은 民族的 趣味와 아울러 民族意識의 새로운 部袖을 發見하러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이 歷史文學은 沈滯된 現代文學을 敎出하려는 한 갈래의 길이기도 하였다.¹⁸⁾

이로 보면 한국근대문학은 (1) 민족주의 문학 (2) 계급주의 문학 (3) 순수문학 (4) 역사문학으로 분류되며, 이 중, 그가 가장 가능성이 있는 方向性을 (4)에 두었음이 분명하다.

懷月이 歷史文學이라 한 것은 바로 歷史小說을 지칭하는 바, 이 범주에는 李光洙의 「許生傳」「端宗哀史」「麻衣太子」「世祖大王」「異次頓의 死」「元曉大師」, 尹白南의 「大盜傳」「烽火」「黑頭巾」「白蓮流浪記」, 碧初의 「林巨正」, 月灘의 「錦衫의 皮」「侍春賦」「多情佛心」「前夜」「黎明」, 朴花城의 「白花」, 金東仁의 「雲峴宮의 봄」「젊은 그들」「甄萱」, 憑虛의 「無影塔」, 李泰俊의 「黃眞伊」「王子好童」, 洪曉民의 「仁祖反正」, 李東珪의 「金庾信」 등이 든다. 역사소설의 이러한 양상에 대해 月灘은 『歷史小說도 小說일 뿐 그 以上도 以下도 아니다』라는 일반론을 폈고 玄鎭健은 그 작가적 태도에서 다음 두가지로 분류한 바 있다.¹⁹⁾ 하나는 작가가 아무 목적없이 史實을 탐독하다가 主題(창작동기)를 발견하는 경우이고, 주제가 먼저 정해졌으나 어떤 현실적 여건에 의해 불가능 할 때 역사적인 것에 의탁하여 창작하는 경우가 그 다른 하나이다. 후자는 소위 작가의 意識性이다. 懷月의 역사소설론은 이 意識性에부터 출발되어 있다. 그는 이 意識性을 (1) 史上에 나타나는 人物의 性格과 生活을 작가의 인생관이나 史觀에 따라 개조하여 새로운 人間性으로 창조하려는 것(「雲峴宮의 봄」「錦衫의 皮」「無影塔」 등) (2) 작가가 지닌 현대적 사상성을 역사소설을 통해 표현하려는 것(「林巨正」 李光洙의 「李舜臣」 八峯의 「深夜의 太陽」 등)로 나누고 있다. 후자의 意識性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양반과 상민의 갈등을 그리어 현대적 계급의식을 나타내며 관료들 매도, 반항하는 데서 현존 권력의 타도 및 혁명의식의 암시 또는 역사상의 忠君憂國의 사실에서 민족의식을 강조하는 것이다.

18) 원고 pp. 750~751

19) 朴鍾和, "歷史小說과 考證" (『靑苔集』 永昌書館 p. 267), 玄鎭健, "歷史小說의 問題" (『文章』 1939. 12)

懷月の 이러한 논의는 마침내는 碧初의 「林巨正」 한 작품을 논의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보아진다. 실상 第五章의 핵심은 이에 놓여 있는 것이다. 『問題의 中心은 어느 作品보다도 大衆性이 많은 「林巨正」이 어찌하여 大衆文學에 編入되려는데 對하여 批評家들은 여러가지 物議를 일으키었던 것인가에 있는 것이다』²⁰⁾라고 懷月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일지기 李源朝는 「林巨正」이 (1) 스케일이 넓고 크다는 것 (2) 시대의 묘사가 치밀하다는 것 (3) 朝鮮말 어휘가 많다는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²¹⁾ 이런 조건은 작가의 力量問題에 속하는 것이지 純粹性과 大衆性을 구별케 하는 조건은 못된다. 懷月の 견해에 의하면 「林巨正」의 중요성은 그 思想性에 있다. 이 思想性을 懷月은 大衆性의 強度와 意識性의 強度가 함께 유래없이 강렬함이라 규정하고 있다. 「水滸誌」나 「三國誌」에 준하는 엄청난 흥미중심의 세부묘사에다 계급의식이 라는 매우 현대적이고 엄청난 意識性이 함께 유착된 이 소설을 대할 때, 『大衆性의 趣味面만을 보고 大衆小說로 평가하려는 評者는 문득 그 意識面에 봉착하게 되매 大衆小說論에서 주저하였고 그 意識面만을 보고 이 작품을 純粹文學, 意識文學이라고 規定하려는 評者는 그 大衆性 때문에 회의하게 되었던 것』²²⁾이라 懷月은 보았다.

이상과 같이 懷月文學史가 歷史小說論으로 결론을 삼았다는 점, 그리고 그 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소개하였다. 이 점은 다분히 의도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어 보인다. 懷月文學史의 序論을 검토해보면 곧 이 사정을 알 수 있다. 40년의 고난의 역사 속에서 전개된 한국문학을 그는 〈民族文學의 건설〉이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점은 林和文學史에서는 물론 없는 말이지만, 白鐵文學史에서도 이런 意識은 별로 드러나 있지 않다. 懷月이 第五章 끝에 첨가한 다음 구절이 이 사정을 잘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朝鮮의 歷史文學은 現代朝鮮文學의 末期에서 現代文學의 우울과 침체와 회의를 克服하려는 새로운 進路이었을 뿐아니라 民族的 啓蒙運動으로도 一面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된다.』²³⁾ 이로 보면 文學史 記述이 體驗의이든 아니든 主體

20) 원고 p. 774.

21) 李源朝, “林巨正에 對한 小考察”(「朝光」1938. 8)

22) 원고 p. 787.

23) 원고 p. 786.

的 측면으로서의 意識과 學問으로서의 方法論의 갈등이 알게 모르게 작용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懷月文學史의 初稿分(노트로 된 것) 끝에 붙어있는 文人名單一覽表〉

李光洙(春園) 廉想涉(模步) 李秉岐(가람) 朴鍾和(月灘) 金台俊 文一平 李人植 李海朝 崔瓊植 李相協 趙潤濟 趙重桓(一齋) 尹敦重(白南) 崔南善(六堂) 呂圭亨 齊學文(瞬星) 玄相允(小星) 閔泰琿(牛步) 金東仁 朱耀翰(頌兒, 요한) 林長和(盧月) 金觀鎬 田榮澤(秋湖) 崔承萬 金煥(白岳) 李一(東園) 吳天錫(天園) 朴錫胤 金億(岸曙) 金瓊永(惟邦) 黃錫禹(象牙塔) 盧子泳(春城) 朴英熙(懷月) 卞榮魯(樹洲) 吳相淳(空超) 李薰 辛泰嶽 鄭泰信 南宮瑩 李赫魯 李丙燾 金元周 高敬相 崔承一 羅慶孫(彬稻香) 李能善 鄭榮信 李缸 洪思容(露雀) 李相和 玄鎮健(憑虛) 安碩柱(夕影) 元世憂(雨日) 金基鎮(八峯) 柳春燾(柳葉) 梁柱東(無涯) 白基萬 孫晉泰 李章熙(古月) 方仁根 林仁植(林和) 金與濟(流暗) 金東鳴 金廷湜(素月) 金炯元(石松) 趙命熙(抱石) 金東煥(巴人) 朴八陽(金麗水) 崔承一 宋武鉉(宋影) 崔鶴松(曙海) 李益相(星海) 朱耀燾 李箕永(民村) 梁建植(白華) 白洲 李殷相(鸞山) 曹雲 蔡萬植 韓秉道(雪野) 朴花城 姜宗燾(雨村) 劉道順(月洋) 姜晟周(愛泉) 韓晶東 宋順鎰 金大駿(海剛) 金浪巖 李鍾鳴 韓龍雲 鄭盧鳳 金復鎮 李浩 李赤曉 洪曉民 李北滿 趙重浪 韓植 尹基鼎 金孝植(南天) 權景完(權權) 安弼承(安漢——懷南의 착오, 인용자) 金斗鎔 梁昌俊 閔丙徽 李孝石 俞鎮午(玄民) 宋順鎰 金炳濟 安含光 金水八 白信愛 嚴寅燾 朴世永 金龍濟 朴芽枝 金昌述 柳完熙(赤駒) 金華山 李荊林 白世哲(白鐵) 申應植(石舄) 金翰容 李軒求 崔象德(獨鵬) 金井鎮(雲汀) 金泳備 金佑鎮 金晉燾 李瑄根 鄭寅燾 具河潤 李松 金韻 曹希醇 徐恒錫 金玼燾 申明均 李熙昇 李允宰 宋錫夏 李石薰 沈大燾(燾) 李葵薰 韓仁澤 李無影 姜敬愛 趙碧巖 金光洲 朴榮濟 玄卿俊 崔仁俊 李根榮 咸世德 李北鳴 崔貞熙 洪九 李東珪 池奉文 金友哲 鄭青山 李周洪 金大鳳 金大均 尹世重 桂鎔默 鄭飛石 玄德 姜鸞鄉 鄭人澤 朴魯甲 趙容萬 金沼葉 許俊 金永壽 崔明翊 石仁海 金史良 金煥泰 丁來東 李泰俊(尙虛) 張德祚 李善熙 朴泰遠 金東里 金裕貞 李箱 尹圭涉 金午星 韓曉 韓熙鸞 崔載瑞 朴啓周 金利錫 金化清 崔正翊(崔明翊의 필명—인용자) 李彙昌 金福利 俞恒林 具然默 金聖集 金廷漢 崔泰應 郭夏信 林玉仁 池河蓮 任丙河 黃順元 金永錫 鄭芝濬 金允植(永郎) 吳河潤 朴龍喆 金炫壽 辛夕汀 金素雲 金尚鎬 金起林 柳致環 李燦 金午星 張萬榮 金朝奎 尹嵐崗 趙靈出 薛貞植 毛允淑 朱壽元 張貞心 盧天命 林學洙 馬鳴 楊相殷 李洽 閔丙均 金光均 吳熙乘(一鳥) 白石 李陸史 吳章煥 李海文 徐廷柱 閔泰奎 金軫世 楊靈閑 金連鎮 鄭吳昇 李肅岳 李秉珪 趙芝薰 金鍾漢 李漢稷 金洙敦 朴斗鎮 曹南嶺 朴木月 朴南秀 林學洙 鄭寅普 安白山